三川電機(株) 社 長
鮮都電機(株) 副社長
李 龍 熙

전기공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한국전기공업협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협회발행지의 창간호에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전기공업계에서 외골수로 전기공업인임을 자처하며 한평생 바쳐온 지금, 과거를 회상하니 감회가 무상함은 어쩔 수 없는것 같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온 것도 같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벽들이 훨씬 많음을 생각케하고 자연과 그 섭리를 파악하고 이용하려는 기술자들의 노력이 얼마만큼 유한한 것이었던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번 산만 넘으면 순탄한 평야가 보일 듯하여 피땀 흘리며 넘어보니 더 큰 산이 우뚝 버티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절망과 뒤범벅이 된 새로운 투지의 싹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行路인가 생각해 본다.

전기공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공급을 위한 장비를 제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성이 없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가 일쑤이지만, 정작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기공업인의 숨은 노력은 1960년대 부터 본격화된 산업화의 과정에서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산업발전을 가능케 하였음을 否認할 수 없으며 이에 자부와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넓은 세계시장과 선진공업국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작금의 노력과 우리 전기공업인들의 활기찬 의욕이 있는 한 머지않은 장래에 世界第一의 商品들이 속속 출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개발투자와 가급적 비합리적인 중복투자를 피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업체간의 조화를 이루어 有機的인 役割分擔은 물론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평가해주고 협력해 간다면 훌륭한 결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전기공업협회와 모든 업체가 우리나라 산업의 초석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筆者는 '87年 電氣導入 100週年 記念式場에서 業界發展에 이바지한 功績으로 「鐵塔産業」勳章을 授與받았다.